



# 천주교 롱 아일랜드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Apostolate  
at Holy Name of Jesus Church

<b>예인 한의원</b> 안국산 안약개 처방 공진단 경옥고 우지섭 다미아노 Tel.718-539-5161 142-36 38 Ave. #1313 Flushing, NY11358	<b>조재민(바오로) 교정 치과</b> 1991 Marcus Ave. Suite 106 New Hyde Park, NY 11042 Tel (516-775-9393) 32-06 Bell Blvd. Bayside Tel (718-229-9010) WWW.NHPORTHO.COM	<b>지운선 필라테스!</b> 바른 자세 교정 체형 교정 개월 운동 산전, 후 관리 운동 Tel. 718-309-4191 지운선 도미니카	<b>왕금어장잇집</b> GOLDEN SUSHI (구 파도잇집) 173-53 46th Ave. Flushing, NY11358 Tel. 718-321-3047
<b>자동차, 주택, 생명보험</b> 248-25 Northern Blvd. Suite 2G Little Neck, NY 11362 718 - 631-1200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토니 윤 (세바스찬)	<b>배근일 내과</b> (일반 내과 전문의) 718-358-3151 154-08 Northern Blvd. 2 Fl. Flushing, NY 11354	<b>캘리강 보험 &amp; 사회복지서비스</b> 오바마 케어 / 에센셜 플랜 어린이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 메디케어 노인 사회 복지 서비스 생활 상담, 등등 Kelly Kang 917.797.0718	<b>메디케어 시니어 풀렌 전문</b> 메디케어 추가혜택 가입, 변경 무료상담 썬니 립 Tel : 718-359-2244 516-922-7487 E-mail: sunnieklm@gmail.com
<b>Comfort Your Sole</b> 당뇨, 건강신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받음 546 Commack Road Deer Park, NY 11729 (631) 242-4000	입시 전문학원 <b>BNB 아카데미</b> SAT, ACT, PSAT 5년 연속 SAT 만점자 배출 All level-subjects Tutor Special (Office) 631.858.2622 WWW.BNBACADEMY.COM	<b>* 다께 핏집 *</b> 한국식 핏집, 한식 전문 파티 음식 주문 가능 742 Old Bethpage Rd. Old Bethpage, NY 11804 516.293.1559	<b>가정문제 연구소</b> (창립 1973년) 가정문제상담(부부, 개인, 가족) 가정법, 이민법 516-605-2605 소장 레지나 김 (무료)
순 한국식 중화요리 <b>년 짜장 난 찜봉</b> 연회석 완비 Mon ~ Sun 11 am ~ 10 pm TEL : 718-225-1210 210-07 Northern Blvd. Bayside			

### 오늘의 미사 지향

	연미사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봉헌자	생미사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봉헌자
12:00	이승태 요한, 이상범 조나단 남상진 바오로	이순애 수산나 이동균 펠릭스 가정, 가족 봉헌, 김갑상 바오로 가정	몬시놀 Bauhoff, 임테오도로 사제, 송레오 사제 이다미안 사제  한상만 에드워드 가정 전세준 레오 성당 교우분들 정명희 크리스티나 가정 이재만 미카엘 가정, 정진미 베로니카, 정선미, 신용우, 유부순 데레사 김동남 다니엘, 이태진 펠릭스 최인균 프란치스코 김진섭 스테파노, 김다영 데레사, 김중례 안나, 윤애란 엠마, 윤두황 레오	김갑상 바오로 가정  남 헬레나, 이인순 미카엘라, 최인균 프란치스코, 김갑상 바오로 가정  한재숙 베로나 전복관 야고보 남 헬레나 정명희 크리스티나, 김갑상 바오로 가정 이인순 미카엘라  윤윤식 요한 오테알 라파엘라, 김갑상 바오로 가정 김갑상 바오로 가정

2020년 11월 08일		연중 제32주일		제 2122호
성당 안내	미사 안내	성사 및 교리		
* 주임 신부: 이재원(다미안) Rev.Jae Won Lee (Damian) 516-728-2770 * 평협 회장: 이명훈(벨라도) 917-349-3473 * 사무실 516-921-3333	주일미사 : 토 오후 8시 (저녁주일미사) 일 교중미사 낮 12시 평일미사 : 수 오전 11시 목 오후 8시30분 성모신심미사 : 매달 첫째 토 오전 10시 (미사 후 성시간)	예비자교리: 고해 성사 : 미사 20분 전 유아 세례 : 희망일(사전 접수) 병자 성사 : 위급하기 전 연락요망 혼인 성사 : 6 개월전 상담		

입당송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 1 독서	지혜서	6,12-16	제 2 독서	테살로니카 1서 4,13-18
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5,1-13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전례 봉사자 (11/08)	미사해설	1, 2 독서	기도
토 8:00 pm	김성섭	이창준	해설자
주일 12:00 pm	이창희	이영희	해설자
전례 봉사자 (11/15)	미사해설	1, 2 독서	기도
토 8:00 pm	조영희	문채영	해설자
주일 12:00 pm	김성섭	김현미	해설자

공동체 소식

본당 소식

◆ 11월 한 달동안 모든 미사 후에 위령성월기도를 바치겠습니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주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11월 22일(주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미사 중 추수감사절 특별감사헌금 있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특별헌금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26일(목) 저녁미사 없음(사무실 휴무)

◆ 봉성체 안내  
대상 : 몸이 불편하셔서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본당교우분  
신청 : 본당 사무실(연락처, 위치)

◆ 무선 인터넷 (Wi-Fi) 안내  
1. 게시판에 있는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으시거나  
2. Catholic Church를 찾으셔서 패스워드  
5169213333 입력 후 사용



그림 전시회장에 축하 꽃을 보내며  
너무 화려할까 마음이 쓰였어요.  
주객전도하면 곤란하니까요.

고요히 배경이 되신  
요셉 성인처럼, 성모님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분께서 일하시기를!

글. 장정애 마리아고래피 시인(만덕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오늘의 말씀

구원의 기름

윤정환 신부 / 중앙성당 주임

오늘 마태오 복음사가가 전하는 열 처녀의 비유는 구원과 심판의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깨어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몇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먼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이런 불멘소리를 할지도 모르지요. "하필이면 신랑이 밤에 올게 뭐랍니까. 낮에 왔으면 등불을 켜 기름은 필요도 없었을 것을." 또한 신랑을 만난 다섯 처녀들도 그래요. 기름을 나눠 쓰면 될 것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자기들만 들어가지요. 게다가 신랑은 늦게라도 기름을 마련해온 처녀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문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를 보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혼인잔치는 곧 구원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린다면 구원될 것이며,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말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 다른 이가 대신해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기름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마태오 복음에 나오는 다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잔치에서 쫓겨난다고 하였습니다.(마태 22,12) 여기서도 예복은 잔치에 함께 하는 마음이지요. 결국 잔치 예복이나 기름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1테살 4,14)라고 말하는 대로, 그것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며, 구원의 희망인 것이지요.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1테살 4,16~17)

지혜서 저자는 말하지요.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지혜 6,12~14)고 말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으며, 또한 우리는 이미 구원의 문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어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정성	20시(토)	12시	교무금	감사헌금	주보 광고	초봉헌	합계
연중 제30 주일 (10/25)	\$245.00	\$956.00	\$2,300.00	\$00.00	\$ .00	\$00.00	\$3,501.00
미사 참례자	20명	83명	*	*	*	*	103명
교무금 내신 분	김금주(7-8) 송정선(1-12) 권청자(10-12) 신영호(9-11) 편원중(10) 편제임스 폴(10) 이창희(6-12)						

사무실 업무 시간: 주 일 = 오전 10시 ~오후 3시

수 = 오전 10시 ~오후 3시

목 = 오후 6시30분 ~오후 10시30분

토 = 오후 5시 ~오후 9시